포장업계 통합단체로서 역할 제고

한국포장협회 李大成 상근부회장

산업포장지도개발본부장, 산업디자인본부장을 역임하며 24년간 포장관련 업무에 종사해왔던 전 KIDP 이대성 본부장(55)이 지난 7월에 사단법인 한국포장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부회장은 "포장협회는 업종별 포장산업 전체 모임을 전제로 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요컨대 포장재료별, 즉 지류 합성수지 유리 금속 목재 기타 분야를 그 대상으로 망라해야 한다. 물론 분야별 협동조합이나 연합회 등이 구성돼 이미 오래 전부터 활동을 해왔으며, 단체별로 움직임도 상당히 활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조합이나 연합회 등이 상호 유기적인 연결과 특성간의 보완, 또한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기술이나 인력양성 등에 있어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포장협회가 발족되었던바, 업계 전체를 위한 산적한 과제를 풀어나가고 보완해 나가기 위해 투신할 생각"임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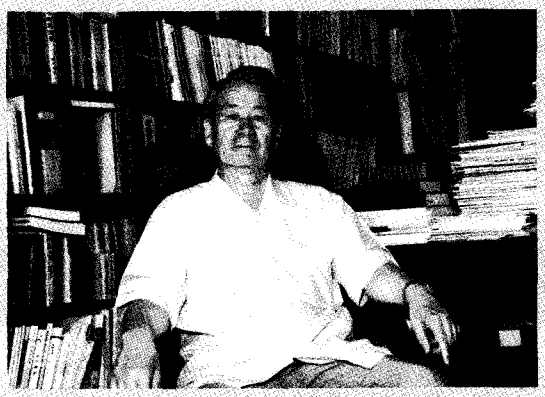
이 부회장은 또 국내포장산업의 문제점으로 규모로는 동남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크지만 대부분 펄프의 수입의존, 포장기계의 국산화율 저조, 인쇄분야의 낙후, 폐기물 처리문제의 심각, 전문인력 양성체제의 미흡 등을 지적하고 이러한 과제해결을 위해 포장협회가 관련단체와의 공동노력과 상공부 등 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요컨대 포장협회를 명실공히 국내 포장산업에서 통합단체로서의 면모로 그 역할을 키워나가겠다는 뜻이다.

이대성 부회장은 부산고등학교와 한양대 화학공학과, 동 대학원 화공장치과를 졸업하고 KIDP에서 요직을 두루 거치는 동안 공업표준심의회 포장부회(공진청), 국방부 규격자문위원, 상공부 우수포장대전심사위원, 환경처 폐기물분과위원, 교통부 물류표준화 추진위원, 중소기업 기술지도사(중기단) 등의 포장관련 전문위원 경력과 중동지역 포장문제점 조사단장(78년), 아세아 포장연맹 파견단 한국대표(6회 파견) 등 다양한 해외활동 경력을 지니고 있다.

이대성 부회장의 취임으로 한국포장협회의 여러 사업, 예컨대 정보지 발간과 폐기물 처리사업, 국내외 교류, 각종 실태조사, 회원사 권익증대 사업 등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업계의 공동발전과 국내 포장산업의 국제화를 향한 가교 역할로서 포장협회의 위상과 기능도 크게 신장될 것으로 보인다.

포장산업 頂端部의 生長點 역할

한국포장학회 辛東韶 회장



지난 6월 13일 발기인대회를 가진 데 이어 7월 7일 창립총회를 개최함으로써 1년여의 산고 끝에 마침내 한국포장학회가 태동했다. 본 학회는 지난해 5월 학회 설립 필요성을 공감한 여러 사람이 첫번째 모임을 가진 것을 출발점으로 일본포장학회 관계자와의 교류, 학회 창립에 대한 산·학·연의 공감대 형성과 발기인 구성 등 계속적인 실무작업 끝에 탄생된 것이다.

한국포장학회 초대 회장으로 추대된 신동소 교수(63·서울대 임산공학과)는 "국가간의 무한경쟁시대에서 포장의 과학화와 포장기술의 선진화를 위하여 산·학·연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한 때이며, 이에 포장기술과 관련학문 분야간의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하고 선진 여러 나라의 포장학회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어 국제적인 선진정보의 국내에의 소개, 총체적인 포장의 과학화, 선진화를 위한 學際的 연구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에 학회 창립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금까지 개발원(KIDP)과 관련단체, 업계 등이 국내 포장산업 발전을 선도해왔던바 이를 자라는 나무로 비유할 때 '肥大生長'을 가져온 것이라 한다면, 앞으로 학회는 정단부의 생장점 역할로서 포장산업의 '伸長生長'을 추구, 이 두 생장이 조화를 이루어 국내포장산업 발전을 원숙하게 이끌어 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동소 회장은 앞으로 학회가 포장산업관련 각종 학술연구와 세미나 개최, 국내외 교류, 우수논문 시상, 학회지 발간, 업체 기술지도와 자문 등 학계·조합·협회·업계 등 분과별로 각기 전문위원을 구성해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임을 밝히고 우선 첫번째 사업시행으로 올해 11월중에 국제세미나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국내 포장산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우리나라의 전통포장을 발굴하고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선진국의 포장기술이나 기법만을 따라간다면 항상 모방 수준에 불과하다. 진정으로 우리나라 포장산업의 기초와 뿌리를 튼튼히 하고 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통포장과학과 선진포장기술을 접목시키고, 거기에서 세계적인 것을 재창조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전통포장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작업이야말로 우선 중요한 일이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신 회장은 술은 一滴不飮에 화초 가꾸기가 유일한 취미라며, 끝으로 포장문화를 가꾸며 학회 연구업무를 낙으로 삼고 있다는 소박한 의견을 피력했다.

포●커●스

'쓰레기라는 말부터 버려야'

환경마크협회 盧隆熙 회장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여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992년 6월부터 환경보전협회가 시행해온 환경마크제도 사업이 민간기구인 사단법인 환경마크협회로 이관되었다. 지난 6월 27일 창립총회를 갖고 정식 출범한 환경마크협회는 배달환경연합의 노융희(68· 서울대 명예교수) 회장과 환경운동연합의 최열 사무총장을 각각 초대 회장과 부회장으로 선출하고, 임원으로는 환경처 공업진흥청 경실련 등 6개 사회단체와 환경분야 전문가 등 17명으로 구성함으로써 환경마크제도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적극적인 사업을 모색해나갈 전기를 마련한 셈이다.

노융희 회장은 "환경마크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기업, 그리고 사회여론을 올바로 이끌어 바람직한 소비자 운동을 추진할 민간단체들의 역할과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정세 속에서 그동안 환경보전협회 내에 환경마크위원회가 재구성된 뒤 환경마크제도의 법적 위상을 정립하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었다. 그러나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정리해볼 때 환경마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독자적인 법인체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으며, 그 결과 오늘의 협회가 탄생했다."고 협회 발족 배경과 그 의의를 밝혔다.

환경마크제도는 79년 독일정부에 의해 최초로 시행되었고, 일본은 89년, 캐나다는 90년, 미국 프랑스 영국 호주는 91년부터, 유럽공동체는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전세계적으로 약 20여개국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올해 6월 현재 환경마크대상 품목은 25개 품목이며, 62개업체 162개 상품에 대해 환경마크가 승인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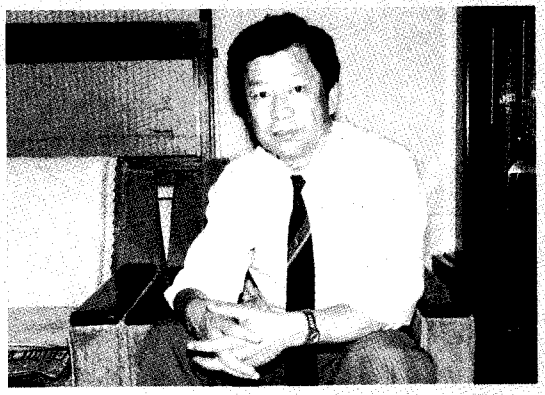
환경마크협회는 올해 9월쯤에 협회 창립기념 세미나를 개최하고 회보를 발행해 환경마크제도를 널리 홍보 계몽하는 한편 이 제도를 이용하는 업체의 결속과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환경마크제도가 유익한 것임을 알려나갈 계획이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초대원장을 역임하고 정년 퇴임한 노 회장은 실현성 없는 반대와 운동권식 시위 대신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환경운동을 통해 '토박이 환경'을 되찾는다는 생각으로 수시로 국제세미나 등에 참석하고 각국의 환경대책을 국내에 전파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노 회장은 "일회용 문화를 추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쓰레기'라는 말부터 우리 주변에서 없애는 의식개혁이 요구된다. 또한 우리가 서구화를 마치 근대화의 지름길인 양 받아들이는 것은 크게 왜곡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순수한 국산품은 '사람'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제화를 지향할 때 우리만의 개성과 특수성을 살리지 않고는 사상누각에 불과한 얘기"임을 지적했다.

'대국적 견지에서 최선 다할 터'

한국스틸캔재활용협회 안백순 이사



한국스틸캔재활용협회(회장 이동춘)가 지난 5월 28일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한지 두달이 됐다.

포항제철을 비롯한 소재업체 5개사와 한일제관 등 제관업체 20개사, 롯데음료 등 음료업체 30개사로 구성된 한국스틸캔재활용협회는 스틸캔의 회수에서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관리하겠다는 포부를 안고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1차년도인 올해에는 우선 수도권 지역에 사업본부와 재활용센터를 건설, 차츰 그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국스틸캔재활용협회는 정익균 상근부회장과 안백순 이사(사무국장)를 중심으로 사업을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다.

이에 포장정보는 실제 계획에서 실행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안백순 이사를 만났다.

안 이사는 74년 명지대를 졸업하면서 한일제관에 입사, 10년만인 84년 웅비산업(주)을 2년간 자영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20년동안 제관산업에 몸담아왔다.

제관산업에서 남달리 많은 희노애락을 겪었던 안 이사는 이제 대국적인 측면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중책을 짊어지고 첨병으로 나섰다.

"지금까지는 회사만을 위해 노력했지만 이제부터는 환경보호를 책임진다는 자세로 큰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이 분야를 잘 개척해 후배에 물려주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안 이사는 "정부의 시책에도 부응하고 업계발전 방향을 위해 일할 수 있어 기쁘다."며 "그동안의 경험에다 혼신의 힘을 배가하면 모든 것이 잘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표출했다.

"매사 자기하기 나름입니다. 이 일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큰 일이라 생각하고 노력할 계획입니다."라며 안 이사는 부푼 마음을 가다듬기도.

안 이사는 지난 90년부터 추진해온 이 계획이 실현돼 보다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며, 앞으로 산재해 있는 수거 문제, 재활용 문제, 대국민 및 관련기관 홍보 등을 계획하고 있다.

물론 이 모두가 그의 차지이지만 신세계를 개척한다는 자긍심 속에 주어진 일을 성심성의껏 처리하고 있는 그의 얼굴에서 협회의 밝은 내일을 볼 수 있었다.

낚시와 골프로 심신을 단련한다는 그는 협회 일을 맡으면서 그것들은 상상도 할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앞으로 추진해 나갈 사업을 구상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리를 정리했다.

포●커●스

한국시장 신규 진출 강화

미국포장기계협회 Andy Benson 마케팅담당이사

지난 6월 21일 미국 포장기계협회(Packaging Machinery Manufacturers Institute : PMMI) 마케팅 담당이사인 ANDY BENSON 씨가 한국포장협회를 방문, 협회 이대성 상근부회장과 상호 관심사 및 양 협회간 교류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그의 방문은 한국시장에의 신규 진출에 관심을 가진 PMMI 산하 11개 관련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사절단을 구성해 내한, 국내에서 식품·음료·의약품 등의 실수요자를 대표하는 기관이나 포장기계 및 관련 산업을 대표하는 기관과의 만남을 통해 미국 포장기계업체의 마케팅과 한국내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Andy Benson 씨는 "PMMI는 미국의 포장기계 제조업체를 대표하는 협회로서 지난 1933년 설립돼 현재 30억달러 규모 시장인 미국 포장기계 생산회사의 75% 정도되는 약 300여개 업체가 망라되어 있다. 포장재료 부문 외형은 약 800억달러로 추정하고 있으며, 미국 전체산업에서 포장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 포장산업의 수출비중은 약 20%선을 넘고 있다."고 미국포장산업의 현황을 간략히 소개했다.

PMMI는 또한 메이커와 고객을 위한 다양한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진행시키고 있으며, 환경문제 대응 등을 위한 포장기술 강화, 전시회 주최, 연관산업 분야와의 유대활동, 무역 증진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대성 부회장은 한국포장협회 소개와 국내 포장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고 앞으로 양국간, 또는 양 협회간 공통의 이해를 찾아 상호 협조를 도모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PMMI가 오는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PACK EXPO'를 개최하는데, 포장협회는 PMMI로부터 이 전시회 참관은 물론 전시회 기간중 현지 관련업체 방문에 대한 편의를 제공받기로 하고 국내 참관단을 모집하기로 했다.

이 시카고팩은 2년마다 열리는 세계 유수의 전시회로 올해는 82,000평방미터의 전시장에 1,200여 전시업체가 참여하고, 전세계에서 85,000여명이 참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